



한형석 (사)한국계육협회장

新年辭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었던 병술년(丙戌年) 한해가 지고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해년 한해는 부디 우리 업계에 유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업인 육계 및 계육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회원 및 관련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우리 업계는 3년여만에 재발한 AI로 인해 직·간접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4차례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한 AI는 전북 익산, 김제지역에 이어 충남 아산지역의 오리농장에서 발생,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당국도 AI 감염경로를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닭고기 판매량은 AI가 발생하기 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육계가격 또한 생산비를 크게 밀도는 가격에 형성되고 있어 농가는 농가대로 계열주체는 계열주체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한 달이 넘게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계열주체가 적자누적으로 자금난에 봉착돼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AI 발생이 인위적인 측면보다는 천재지변에 가까워 이제는 육계산업에 종사하려면 매년 AI 발생을 전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갖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닭고기는 원천적으로 AI와 무관하다는 정석을 소비자들에게 철저하게 인식시키는 것만이 앞으로 닭고기 산업을 유지해 나가는데 큰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협회를 비롯 관련업계가 AI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 AI 발생 이후 매년 언론에 용어의 변경요구 및 과잉 보도 자제를 요구해왔으며, 닭고기의 안전성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해왔으나 막상 AI가 발생하고 보니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문제해결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난해 말 개최한 대의원 총회에서 좌절됐던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의 재추진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육계자조금 사업을 통해 국내산 닭고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부각시켜 소비자들이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의식은 건강과 관련

된 것이라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최근의 소비동향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닭고기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AI 발생상황에서도 보았듯이 차단방역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닭고기 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만은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그리고 관련업계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계육업계의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I로 인해 업계의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더뎠고 있지만 더 이상 추가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빠른 회복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정해년에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한해를 지낼 수 있도록 업계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